

보도시점 2026. 6. 17.(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6. 6. 16.(화)

## 낙동강 하구에 동남참게 5만 마리 방류 “기수생태계 복원 박차”

- 강과 바다를 오가는 동남참게, 낙동강 하구 생태복원의 신호탄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수자원공사는 6월 18일 오후 낙동강 하구 을숙도(부산 사하구)에서 어린 동남참게 5만 마리를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방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부산광역시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수산자원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을숙도 유아숲 체험원 어린이들과 지역 대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는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 하구에 기수역을 조성하기 위해 바닷물을 하굿둑 수문을 통해 유입하고, 하굿둑 건설 이전에 기수역에서 살던 동남참게, 연어, 은어, 새섬매자기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강 하구 지역에서 바닷물과 강물(민물)이 서로 섞이는 곳을 말하며, 염분 농도, 서식 환경 등에 따라 독특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함

이번에 방류되는 어린 동남참게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연에서 살아가던 건강한 어미 게로부터 산란된 알을 부화시켜 0.7cm 이상으로 키운 개체다.

동남참게는 가을철 번식을 위해 하천에서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산란하고,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회유하여 2~3년간 성장한다.

이번 동남참게 방류행사에서는 인근 지역 대학생과 어린이들이 어린 동남참게를 하구에 직접 방류하여 기수생태계 복원에 참여한다.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조성하고 기수 어종을 복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낙동강 하구의 푸른 생태계를 되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우리 손을 떠난 어린 참게들이 거친 강과 바다를 품고 건강하게 자라 낙동강 하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과 아이들이 생태계 복원의 의미를 새기고 환경을 사랑하는 미래 세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동남참게 특성 및 생태.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태상	(044-201-7060)
		담당자	사무관	임호정	(044-201-7072)
	K-water 부산권지사	책임자	부 장	임재훈	(051-200-2510)
		담당자	차 장	하은정	(051-200-2535)





학명	<i>Eriocheir japonicus</i>
국명	동남참게
분류	절지동물 > 갑각류(강) > 십각목(목) > 바위게과(과)
형태	수컷의 갑각 길이 약 63.5mm, 갑각 너비 약 70mm 갑각은 둥근 사각형 갑각의 옆가장자리에 눈뒷니를 포함하며 4개의 이가 있음
산란	가을철에 번식을 위하여 바다로 이동하여 하구 근처에서 교미 4~6월에 암컷이 알을 품음. 부화한 새끼는 하천으로 올라가 자람
생태	한국에서는 남해와 제주도 연안 한국, 일본, 사할린섬, 타이완, 홍콩 등지에 분포

